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드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0 수목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 사이언스 5	00 건강클리닉
2	00 한국인의 밥상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톡?톡! 키즈스쿨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직인직설	00 우리말 겨우기(재) 55 튜닝생활제	45 후토스 일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이슈인 사이드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 자동차부채상 위기 40 TV유치원 풍다공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푸르기 탐구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올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구원의 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때마다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나는 몸신이다(재)	25 일일연속극 <죽을 지켜라>	30 번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국민대청정 우리가	00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기쁜>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여류시 시상식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헌법의 TV연예
12 50 6차산업으로 진화하는 농촌 3회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특선다큐 <1차 세계대전 2부>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왼쪽부터 배우 최덕문, 조진웅, 하정우, 이경영, 최동훈 감독, 배우 전지현, 김해숙, 오달수, 이정재.

## 하정우 “‘암살’로 천만배우 되고 싶어요”

영화 ‘암살’ 전지현·이정재·오달수 등 출연

최동훈 감독 “1년 쓴 시나리오 폐기 다시 써”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 등 스타팅 또는 연기력으로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1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 시사 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암살’은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로 흥행 연타를 날린 데 이어 ‘도둑들’(1298만명)로 대박을 터뜨린 최동훈 감독의 신작이다. ‘도둑들’을 함께한 이정재와 전지현이 이번에도 합류했다. 최 감독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며 전작들과 다른 시도를 한 데 대해 자신에게도 무척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털어놓았다. “1년 쓴 시나리오를 폐기 처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었나 자괴감이 들 만큼 어려웠어요. 배우들한테 이미 이런 거 하자고 얘기 해 둔 상태라 잘 써야 할 텐데, 하면서 1년을 보냈죠.” 그는 재기 넘치는 캐릭터를 화려하게 선보이는 대신 느긋하게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1933년 임시정부 경무국 엄석진 대장(이정재)이 저격수 안옥운(전지현)과 신희무관학교 출신 속사포(조진웅), 폭탄 전문가 황덕삼(최덕문)을 불러모아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 기업가(이경영)를 암살하라는 작전을 전달한다. ‘상하이 피스톨’이라 불리는 정부업자(하정우)는 암살단원들을 모아라는 거액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수족과 같은 영감(오달수)과 함께 경성으로 떠난 암살단의 뒤를 쫓는다. 이번 영화는 각 배우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가 크다. 이정재는 특히 눈에 띄는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서는 역할이 좋다가보다는 ‘이거 어렵겠다’ 했어요. 여러 버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의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위해 15kg를 감량했다. “후반부 탈의한 장면을 찍을 때 특수분장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장면도 그렇고 다른 장면들에서도 살을 뺀 모습이 염색진이라는 캐릭터에 어울린다는 판단 하에 했습

니다. 최동훈 감독은 그런 이정재에 대해 ‘보면 볼수록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여주는 배우’라는 점에서 이번 역할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정재가 맡은 ‘도둑들’의 뽀빠이는 대단한 캐릭터라 제가 참 좋아해요. 정재씨 안에 무슨 생각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을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씨가 힘들었을 텐데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고맙습니다.”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전지현 역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출연을 결정하고 준비한 작품이라 잘하고 싶었어요. 이런 여자 주인공은 인생에 몇 번 못 만날 거라는 욕심이 들었죠. 개인적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집에 총을 가져가서 연습하기도 했고 옥운의 단호한 이미지를 표현하려 긴 머리카락도 잘랐어요.”

또 다른 주연 배우 하정우는 유쾌하고 낭만적인, 자신에게 꼭 맞는 배역을 연기했다.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연기까지 선보인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날 간단한 장소에서는 전지현과 이정재 외에 조진웅(‘명량’), 최덕문(‘명량’ ‘도둑들’)까지 다른 ‘천만 배우’들도 여럿 참석했다. 이 때문에 하정우와 이경영에게는 이번 영화로 ‘천만 배우’에 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하정우는 이에 “그러면 좋겠다.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경영은 곧바로 “저는 나이가 있으니 더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천만 영화를 만나고 싶다”고 맞받아 웃음을 안겼다.

최근 개봉작 다수에 조연으로 얼굴을 내민 배우 이경영은 ‘암살’에서는 친일파 역할을 맡았다.

“이번 역할은 제가 맡은 ‘나쁜 놈’ 순위로는 1위쯤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오달수는 여러 배우가 함께한 현장 분위기를 ‘암살’이라는 말로 전했다.

“연기의 앙상블이라는 게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가 돌아갈 때면 아니라 쉬는 시간을 포함해 나머지 시간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모두 좋은 시간을 보냈기에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 “연기는 공부, 예능은 힐링이죠”

영화 ‘쓰리 썸머 나잇’ 주연 손호준

최근 몇 년간 배우 손호준(31·사진)의 주 활동 무대는 TV 방송이었다. 화제작이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떠오른 데 이어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집밥 백선생’ 등 여행 또는 요리 방송이 잇따라 터졌다.

그가 이번에는 스크린으로 찾아왔다. 15일 개봉하는 ‘쓰리 썸머 나잇’에서다. 임원희, 김동욱을 비롯한 남자배우 셋이 비속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손호준에게는 첫 주연작이다. 개봉을 앞두고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에서 최근 만난 그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와 예능 출연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연기로는 공부, 예능으로는 힐링이 된다”고 답했다.

“작품과 예능은 다른 매력에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는 연기가 일이나 대본 분석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예능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힐링이 돼요. ‘꽃청춘’ 찍을 때는 효정 누나(신요정 PD)한테 ‘저한테 출연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행 보내주셔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는데. 하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고향인 광주의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한 손호준은 서울로 올라와 드라마와 영화 속 작은 역할들부터 맡아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응사’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킨 것이 서른 살에 가까워진 때였으니 무명 시절이 짧지는 않았다.

“응사”는 “소중한 작품, 좋은 추억을 넘어 서울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작품”이라고 그는 돌아봤다. ‘응사’에서 만난 유연석, 바로와의 인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석씨와 바라는 항상 만나고 감독님이나 스태프들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윤호(같은 고향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는 가수 유노윤호)를 연석씨한테 소개해서 같이 만나는데 윤호가 연석씨한테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손호준은 최근에는 배우 차승원을 ‘차승마’로 만든 ‘삼시세끼’와 백종원 대표로 대표를 스타로 만든 ‘집밥 백선생’ 등 ‘국밥’으로 활약했다. 그는 톡톡 튀는 입담을 자랑하는 쪽도, 능숙한 요리 솜씨를 뽐내는 쪽도 아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도 착한 이미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영화는 ‘주요소 습격사건’의 김상진 감독이 만든 신작이다. 현실에 치인 세 친구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해운대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그린 범죄 코미디물로, 그는 갑에게 지친 제약회사 영업사원 왕해구 역을 맡았다. “바다에 들어가는 부분은 10월에 촬영해서 무척 추웠어요. 몸에 뜨거운 물을 붓고 촬영했죠. 그래도 배우도, 스태프도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화면에도 보이는 것 같아 좋습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5:00 초능력 특공대
05:4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두끼 탐험대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뽀빠에 친구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대구 오늘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07:15 책과 광(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원더볼즈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걸작 다큐멘터리	16:30 우당탕탕 아이쿠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책과 광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초등 6학년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30 초등 5학년 여름방학생활	17:15 흥선 코끼리 발루보
08:50 코코몽 3	13:5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활	17:30 두디공
09:05 원더볼즈(재)	14:10 초등 니버	17:45 로보카 폴리
09:20 흥선 코끼리 발루보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30 머털도사	19:00 곤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II-왕자개념>	12:10 올림픽스 <국어II-왕자개념>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물과 통계>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II>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8:00 중학단기특강<영어3 독해 240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8:40 " <수학3 300제>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19:20 필독중국어 <시>
09:00 출제문 수험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20:00 EBS 인문학특강
09:10 중학단기특강 <영어1 독해 240제>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20:50 EBS 기획시리즈
09:50 " <수학I 280제>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0:30 EBS TV 중학 <도덕>	18:00 중학단기특강<영어3 독해 240제>	22:00 중학단기특강 <역사 2>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2 독해 240제>	18:40 " <수학3 300제>	22:40 " <과학3(하)>
11:50 " <수학2 300제>	19:20 필독중국어 <시>	
12:30 실전 취업가이드	19:20 EBS 인문학특강	
13:00 대일리 사술형 수학	20:00 EBS 기획시리즈	
13:10 동양신공 <사회1>	20:5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사회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 <역사1>	22:00 중학단기특강 <역사 2>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 <과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음 5월 30일 壬辰)
<b>子</b>	48년생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진행하여야 결실을 맺는다. 60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2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84년생 바탕이 탄실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49	<b>午</b>
<b>丑</b>	49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것이다. 6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좋다. 73년생 제자리부터 예기치 않은 구설을 들을 수도 있다. 85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61	<b>未</b>
<b>寅</b>	38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50년생 빈틈이 보일 수다. 62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74년생 원칙을 따르라. 86년생 대를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36, 99	<b>申</b>
<b>卯</b>	39년생 추세에 영합하려 하지 말고 좇대를 가져라. 51년생 모든 일을 차차하고 황급히 서둘러야 할 때다. 63년생 뜻 깊은 인연을 맺을 수다. 75년생 기필코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87년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65	<b>酉</b>
<b>辰</b>	40년생 관점에 따라서 편이해라. 52년생 과감하게 청산 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64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76년생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42	<b>戌</b>
<b>巳</b>	41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다. 53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안간힘을 다하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니라. 77년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별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54	<b>亥</b>